



여야 대선 캠프, 지역 공약 치열한 여론전

尹 '광주 복합 쇼핑몰 유치' 공약 놓고 여야 입장 갈려
국힘 "TV토론 열자" 제안에 민주 "시기·장소 부적절"

대선 D-19

여·야 대선 후보 캠프가 대선(3월9일) 정국에서 치열한 여론전을 주도하고 있다.

광주에선 복합 쇼핑몰 유치 공약을 놓고 각 당 캠프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지역 표심을 얻기 위한 여·야 캠프 대리전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초점전 양상을 보이면서 3·9 대선의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각 당 광주 캠프의 존재감과 지원군 역할에 관심이 집중된다.

▶관련기사 4면

17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과 국민의힘·광주 정의당은 자당 대선 후보와는 별도로 각자 선거 유세전에 뛰어들 뒤 광주 복합 쇼핑몰 유치 공약을 놓고 장외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포문을 윤 후보가 열었다. 윤 후보는 지난 16일 광주 방문 유세 현장에서 복합 쇼핑몰을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발언 장소와 시기 등을 문제삼아 윤 후보를 비판했다.

국민의힘 광주시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복합 쇼핑몰 유치는 즉흥적인 공약

이 아니다"라며 "전통시장과 복합쇼핑몰이 상생하고 대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이 공존하며 상생의 도시로 발전을 희망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 광주시당은 샌드집을 잡고 있다. 광주시민 절반 이상이 원하는 복합 쇼핑몰 유치 공약이 민주당에는 아픈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광주시당은 이날 성명서에서 "광주시당은 복합 쇼핑몰 유치를 반대한 적이 없다"며 "복합 쇼핑몰은 '물지마 유치'도, '무조건 반대'도 답이 아니다"라며 "다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지역 상권과의 상생과 공존이다. 이 논의는 광주에서 진행 중"이라고 반박했다.

또 "윤 후보의 복합 쇼핑몰 유치 발언에 대해 '어처구니가 없다'고 한 것은 시장 상인들 앞에서 이 같은 발언을 했기 때문이다. 시기와 장소가 부적절한 것이냐"라고 되물었다.

광주정의당도 윤 후보의 발언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

정의당 장연주 광주시장 예비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복합 쇼핑몰 광주 입점 논란은 대기업 유통업체의 지역 상권 진입 공략에 정치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본다"



선거 공보물 발송 준비 현장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20일 앞둔 17일 오후 북구 운암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원들이 각 가정으로 발송할 책자형 선거 공보물을 정리하고 있다. /김애리 기자

며 "시민 여론 조사가 높게 나왔으니, (복합 쇼핑몰 유치) 해야 한다는 것은 책임 있는 정치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윤 후보의 복합 쇼핑몰 유치 공약 논란은 여·야 찬반 TV 토론회를 열자는 제안까지 나오는 등 '2차전 양상'으로 전개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광주 시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3주 전 이미 후보에게 직접 보고했고 후보가 정책 검토를 지시, 내부 논의를 거쳐 발표된 것"이라며 "양당의 생각을 광주 시민들 앞에서 공정하게 다뤄보자"라며 "광주 복합쇼핑몰 유치"를 주제로 민주당과 일대일 TV 토론회를 개최해 줄 것을

광주지역 방송사에 공식 요청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광주시당은 "이 대표의 토론회 제안도 때와 장소가 부적절하다. 지금은 여야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코로나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를 어떻게 도울 것인지 논할 때"라며 "그 장소는 광주가 아닌 국회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정의당은 "윤 후보는 광주 시민의 쇼핑 걱정 말고 좋은 일자리 걱정이냐 하길 바란다"며 "이 대표는 이 문제로 토론하자고 하는데, 오락가락하는 민주당 말고 정의당과 토론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종행 기자

광주 코로나19 확진자 ↑ 부스터샷 접종자 ↓

자가격리 지침 등 완화되자 백신 기피 현상 심화

광주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지만 '부스터샷' (3차 백신) 접종자 수는 되려 감소하고 있다.

이는 3차 백신 접종을 맞고도 돌파 감염 사례가 이어지고 최근 방역·의료 체계 개편에 따라 '부스터샷' 기피 현상이 심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2차 접종 방역 패스 유효 기간이 끝날 때까지 '부스터샷' 접종을 미루는가 하면, 3차 접종 뒤 돌파 감염이 될 바엔 백신 부작용까지 감수하면서 '부스터샷'을 맞을 필요가 있겠느냐는 얘기가.

17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12일 기준 시민 143만6천183명 중 68.2%인 84만5천594명이 3차 접종을 마쳤다. 이는 1차

접종률 87.3%(접종자 수 125만3천369명), 2차 86.3%(123만9천530명)보다 19.3%p·18.1%p 낮은 수치다.

문제는 '부스터샷' 접종자 수가 갈수록 급감하고 있다는 점이다. 광주시가 내놓은 '코로나19 발생 및 관리 현황' 자료 등을 보면 지난 1일부터 13일까지 3차 접종자 수는 6만4천433명으로 파악됐다.

지난 12월(1-31일)과 1월(1-31일) 3차 접종자 수는 각각 41만4천913명과 26만8천941명이었다.

이달 마감 일수가 보름 정도 남은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달 접종자 수는 12월과 1월에 비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부

스터샷' 기피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반면 신규 확진자 수는 매일 급증하고 있다. 지난 1-12일까지 확진자 수는 모두 1만4천475명으로, 12월(12)과 1월(1) 1천804명과 7천255명보다 각각 1만2천671명(8배)·7천220명(2배) 많다.

'부스터샷' 기피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최근 방역·의료 체계 개편 때문인데, 자가격리지침 완화 등에 따라 방역 수칙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다.

방역 당국은 지난해 11월부터 코로나19 백신 예방 접종을 완료하지 않으면 식당·카페 등 다중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방역 패스를 적용해왔다.

하지만 방역·의료체계 변경에 따라 방역 패스 폐지 주장이 제기되면서 QR

코드 인증 등과 관련한 방역 수칙 완화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방역 당국은 위중증 환자 수와 치명률(확진자 중 사망자 비율·0.52%)을 낮추기 위해 '부스터샷'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 누적 사망자 수는 모두 106명이다.

광주시 감염병관리과 관계자는 "연일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지만 이중 대부분은 경증 또는 무증상자이다. 이는 백신 효과가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라며 "지금은 중증이나 사망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이 제때 제대로 치료 받을 수 있도록 방역에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오후 6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광주 2천570명, 전남 1천305명 등 모두 3천875명이다. 방역 당국은 이날 말부터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코로나19 대유행이 거세지자 4차 접종을 시행하기로 했다. 대상자는 면역 저하자와 요양병원·시설 입소자 등이다. /이종행 기자

광주·전남 주말 또다시 비·눈 전망

19일 광주·전남에는 비 또는 눈이 내리겠으며, 휴일인 20일부터는 기온이 크게 떨어질 전망이다. "19일 광주·전남 지역은 제주도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오전 한 때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밝혔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3도~3도, 낮 최고기온은 4~9도 분포를 보이겠다. 이는 전날보다 8도 낮은 기온이다. 또 밤사이 내린 눈이 얼어붙으면서 출근길 빙판길을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 해안 지역에선 35~60km/h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면서 파도의 높이도 1.5~4m로 높게 일겠다.

이날 오후부터 비나 눈이 온 후 점차 개겠으며, 휴일인 20일에는 구름이 많이 끼며 기온이 영하로 크게 떨어지겠다.

이날 아침 기온은 영하 6도~영하 2도로 예상된다. 낮 최고기온은 0도 안팎에 머물러 체감 온도도 더 떨어지는 등 전날보다 더한 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보인다. 이번 추위는 다음 주 중반부터 풀릴 전망이다. /안재영 기자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한국 선수 경기일정 - 18일

프리스타일스키
오전 10:30
여자 하프파이프 결승
장유진, 김다은

스피드스케이팅
오후 5:30
남자 1,000m 예선/결승
차민규, 김민석

연합뉴스

NAVER

리서치

SINCE 2000 전국 최초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등록기관

코리아정보리서치

- 2022년 대통령선거 여론조사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등록건수 기준 전국 10위
- 2018년 지방선거 여론조사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등록건수 기준 전국 3위
- 국내 최대 4,000개 여론조사 전용 회선 보유
- 20년 선거 노하우와 차별화된 전략 보유

기업 브랜드

<http://www.sulmun.co.kr>
 서울본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47-3, 2층 TEL : 02-2650-4255
 광주본부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162-10 한미빌딩 3층 TEL : 062-225-4505
 중부본부 : 대전광역시 서구 계룡로 625 TEL : 042-368-4600
 EMAIL : 1000news@hanmail.net